

## 장발장은행 제113번째 대출 시행, 15명의 현대판 장발장에게 3,465만원

- 2015년 2월 25일 문을 연 장발장은행.
- **제113차 대출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 위기에 놓인 **현대판 장발장 15명에게 3,465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 장발장은행의 대출은 신용조회 없이, 무담보, 무이자로 진행.
- 지금까지 113차에 걸쳐 1,306명의 시민께 2,297,109,500원을 대출 중.
- 장발장은행의 재원은 시민의 후원으로 만들어져. 2024년 2월 26일(오후 19시 기준) 15,407명의 개인, 단체, 교회 등에서 1,616,175,095원(이자 포함)의 성금 이어져.

1.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장발장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은 2월 26일 제113차 대출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5명의 현대판 장발장들에게 3,465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장발장은행은 이번 대출 심사를 통해 공OO(경기, 81년생)에게 200만원, 구OO(충청, 87년생)에게 200만원, 김OO(대전, 78년생)에게 300만원, 남OO(경기, 57년생)에게 140만원, 박OO(서울, 2003년생)에게 200만원, 송OO(서울, 96년생)에게 300만원, 유OO(서울 97년생)에게 100만원, 이OO(강원, 92년생)에게 300만원, 이OO(대구, 64년생)에게 50만원, 이OO(서울, 95년생)에게 300만원, 임OO(전북, 89년생)에게 280만원, 전OO(경기, 77년생)에게 300만원, 정OO(경북, 82년생)에게 300만원, 조OO(부산 97년생)에게 300만원, 허OO(경기, 88년생)에게 195만원 등 모두 15명의 현대판 장발장에게 3,465만원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3. 이날 심사에는 김학성 대출 심사위원(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민갑룡 대출 심사위원(전 경찰청장), 오창익 대출 심사위원(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우 대출 심사위원(변호사)이 참석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다음 대출심사위원회 회의(제114차)는 2024년 3월 26일(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장발장은행은 소득·재산 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 개혁으로 은행 문을 닫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